

大學院의 未來와 發展方向

申 相 淳

(全南大 英語教育科 教授)

I. 우리 나라 高等教育 概觀

地方 國立大學校를 비롯한 우리 나라 대다수의 대학들은 1950년을 前後하는 年代에 창립되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수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高等教育의 연령은 이제 겨우 30년을 갓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간 '50년대의 韓國動亂과 뒤따르는 休戰期間중 兵役延期惠澤에 따르는 대학의 學生集中은 牛骨塔이라는 自虐的 學園概念을 낳기에 이르렀고, '60년대에 와서는 '50年代에 이어 學園의 學生定員管理의 亂脈相으로 致富하는 學園企業家가 사회의 地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의 대학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70년대초부터는 質的 改革에의 의지가 胎動했으며 서울大學校와 延世大學校에서 각각 高等教育改革을 위한 國際會議를 주최했으며, 政府 차원에서도 教育政策審議會를 구성하여 卒業學點減縮, 系列別 募集, 副專攻制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實驗大學 체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文教部는 美 미네소타大學 Keller 박사의 자문을 얻어 계속 高等教育의 刷新을 추진하여 '70년대 이후 산업발전의 跳躍段階에 들어선 우리 나라의 高度産業社會에 필요한 高級技術人力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特性化大學(주로 工科大學으로서, 에컨대 慶北大의 電子特性化大學, 釜山大의 機械特性化大學, 全南大의 化工特性化大學 등)을 집중 육성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대학생의 증가는 인구 증가와 중등교육기관의 확장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특히 首都圈 人口抑制政策으로 말미암아 地方大學의 伸張勞가 현저했다. '70년대까지에 있어서의 약간씩의 學生定員 증가가, 이에 수반되는 教授增員 및 學校施設 擴充 등에 큰 負擔이나 錯誤를 誘發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서, 실시된 卒業定員制는 學生定員을 一時에 급증케 하여, 大學講義室은 콩나물 교실화하고, 교수의 강의 부담이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원래 낙방해야 할 30%의 정원과 落第豫備生들 때문에 학생의 질이 低下되고 따라서 교육의 내용 역시 영향을 아니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부터 非教育的 要素를 내포하고 있던 卒業定員制는 그 실시 후 3년도 못되어 形骸化된 물골로 남게 되었다.

위의 略述한 우리 나라 高等教育의 30여 년의 歷程은 주로 學部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물론 그간의 高等教育의 改革의 意志는 大學院을 포함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大學院의 運營에 대해 言及한 것은, 筆者의 窺聞窺談의 탓이겠으나 '70년대 후반까지는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다만 서울大學校 大學院이 1971년에 「大學院教育의 強化策 研究」에서 서울大學校의 경우를 論述했고, 1973년 文敎部 敎育政策 審議會의 「韓國高等教育改革의 方向 摸索」에서는 1개 項目으로 數面に 걸쳐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1975년 6월에 政府에 제출된 Keller 博士의 報告書에는 大學院 문제는 전연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말에 가서 大學院 中心制의 大學院 운영을 목표로 하는 서울大學校에서 文敎部 支援으로 본격적인 大學院教育 強化策을 연구하여 각 學問系列別로 「大學院重點育成研究結果 報告書」를 '79년에 간행했다. 이 報告書에는 各系列別, 各 學科別로 大學院의 強化策이 상세히 방대한 量으로 論及되어 있어 우리 나라 각 대학교의 大學院教育 強化에 좋은 指針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II. 大學院의 問題

大學院의 諸般問題를 다루는 本特輯에서 筆者에 課해진 主題는 '大學院의 未來와 發展方向'으로서, 編輯者의 意圖는 다른 필자들에게 부과된 大學院 運營 및 管理 등 제반 사항들이 분명히 露出·提示되고 問題解決方案이 제안되었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의 大學院의 未來像은 어떠한 것이며 發展方向은 어떠한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本稿의 第二章을 논하려고 한다.

'70년대 후반부터 대학원과 관련된 學事擔當者간에는 大學院教育의 內實化를 위한 學問的, 行政的 措置가 세미나 혹은 행정적 지시 등을 통해서 서서히 취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과거 수년에 걸쳐, 특히 '80년대에 들어 大學院의 제반 양상은 改善前의 '70년대의 그것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면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나라 大學院의 實際와 問題點은 무엇이었는가?

1. 定員의 零細性

당시의 敎育法(施行令)에는 大學院 學生定員은 學部 학생 정원의 1/10 이내로 되어 있던 것

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學科當 학생 정원 120~160명(4개 학년)인 경우 동일 學科의 大學院 定員은 12~16 명으로, 碩士·博士課程 5개 학년으로 할당하면 각 학년 2~3명꼴이 되는 셈이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편이고, 더 零細한 學科에서는 碩士課程 1년 募集定員이 1~2 명에 불과한 학과가 허다하였다.

그나마 大學院에 진학하는 學生의 質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73년에 石油波動이 있었으나 우리 나라는 '60년대 후반에 이어 '70년대에 도 계속 經濟成張을 이룸으로써, 學部 졸업생들이 좋은 직장을 골라잡게 되기에 이르러 우수한 졸업생은 직장으로 진출하고 어정정한 次善의 학생들이 就職을 기대하는 것을 겸해서 大學院에 입학하는 현상을 보였었다. 따라서 修學 도중 직장이 마련되면 學業을 중단하는 경우가 非—非 再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大學院의 授業이 正常化될 수는 없었다.

2. 授業의 不實

지금도 대학에 따라서는 '70년대의 惰性으로 대학원이 마치 學部の 附屬物처럼 운영되는 곳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강의 시간표를 짜는 때도 학부 것을 먼저 짜고 나서 빈 시간을 大學院生의 직장 사정을 고려해서 按配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짜여진 시간표나마 제대로 지켜 충실한 수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으려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도무지 한두 사람 놓고 강단에서 강의를 하자니 도무지 강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結果는 학생을 敎授研究室로 오게 하여 敎材를 같이 읽는 등 어불적 시간을 보냈었다. 심지어 茶房講義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면 그 講義 不實의 程度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學科運營의 閉鎖性

근래에 共通科目의 共同設講, 他學科에서의 選擇科目履修 등 措置가 취해져 大學院 學事運營의 閉鎖性이 개방되어 신축성을 갖게 되었으나 종전에는 學科間 장벽이 두터웠고, 모든 과목이 自科 設講의 것으로서 他科 設講科目을 選擇科目으로 이수하는 예가 드물었다. 현재는 改

善 施行되고 있으나 종전에 學部의 他科出身者들에 대하여 대학원 입학을 거부한 경우도 閉鎖的 學科運營의 惡例로 상기할 수 있다.

4. 大學院 教科目的 擔當教授 不足

'70년대까지 대학이 學部 중심의 學事運營이었고 大學院은 오히려 학부의 附屬物的인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마당에 大學院에의 出講은 마치 他校에의 출강을 방불케 했다. 學部 教授定員 自體가 慢性的 不足狀態를 현재에까지 露呈시키고 있는 만큼 教授의 강의부담은 過重했고, 심지어 專任講師도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事例가 없지 않았다. 法規대로 副教授·教授로써만 大學院 科目을 담당케 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대학원은 이미 瓦解되고 없을 것이다. 그러나 博士學位를 가진 助教授로 職級을 낮추어 대학원의 教授不足을 應答하고 있는 실정이다. 前項의 學科運營의 閉鎖性도 교수 부족에의 寄與要因이 되고, 교수 부족은 또 大學院授業의 不實에 기여하는 식으로 惡循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地方大學의 경우 교수 부족 현상은 자못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學生이나 學科의 規模上 서울大學校와 비교하여 큰 差가 없는 몇몇 지방 국립대학교의 敎員定員은 서울大學校의 약 半을 상회할 정도이다. 서울大學校가 教授定員의 부족을 호소함에 있어 하물며 地方大學에 있어서야!

이상 열거한 4개 項目의 당면 문제점 외에도 學部課程—碩士課程—博士課程의 連繫性 문제, 大學院 課程用 參考圖書資料의 未備狀態, 학생수의 零細性에서 야기되는 評價의 適正性 問題, 學位論文指導의 充實性 문제 등이 大學院教育의 強化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先決問題로서 대두되었다.

Ⅲ. 未來像과 發展方向

'60년대에 始動이 걸리고, '70년대에 跳躍段階에 進入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은 계속 꾸준한 伸張勢를 보여 2000년대의 先進段階를 바라보며 經濟, 社會, 文化 등 각

분야에서 급격한 變化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고도의 產業社會를 손조롭게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는 고도의 能力을 가진 高級 知識人과 高級 專門職業人의 공급이 필요하게 됨은 歷史發展의 自然的 趨勢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長期的인 國家發展의 차원에서 高級人力의 養成은 앞으로 大學院에서 담당하게 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심오한 學問의 理論과 實踐의 方法을 연구하고 고도의 專門職業分野에서 創意的이고 指導的인 人材를 양성하여 國家·社會에 배출함으로써 人類文化의 暢達에 貢獻함이 大學院의 窮極的 存在理由라고 할 수 있다.

前章에서 이미 우리나라 '大學院의 現況과 問題點'의 일부가 다루어졌고 또 다른 執筆者에 의해 同題目이 소상히 다루어졌을 것으로 믿어 그러한 문제점들을 是正한 앞으로의 大學院의 像을 그려보기로 한다. 다만 이 描寫는 完成描寫가 아니고 素描에 불과하며, 어떤 절차는 現在 施行중에 있음을 미리 諒解를 구하는 바이다.

1. 系列別 定員管理

종전의 學科別 固定 定員은 너무나 融通性 없는 정원 관리로서 志願者가 없는 경우 他科에의 유용이 不能했으며 能力 不足者를 입학시키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 근래에 각 대학원에서는 學則을 改正하여 學問系列別로 大單位 定員制를 運用하여 學科別 志願者數의 비례로 定員을 按配하여 학과별 학생수의 零細性을 모면하고 있고, 학과의 사정에 따라서는 隔年制로 學生募集이 가능해지기도 하여 그 定員을 他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學科의 開放

이는 학생선발 문제로서, 종전의 동일 學科出身에만 한정했던 入學資格을 확대해서 他科出身도 시험에 합격하면 입학시키자는 學科開放政策이다. 다만 傍系 入學者에 대하여는 指導教授 또는 學科教授會議가 인정하는 下級學校 課程(博士課程 入學者는 碩士課程, 碩士課程 入學者는 學部課程) 중에서 일정한 학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시키면 된다.

3. 融通性 있는 敎科課程 運營

중견의 大學間, 學科間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가뜰이나 敎授不足에 授業負擔이 過重한 마당에 類似學科系列間에 유사한 과목의 統·廢合은 여타로 바람직한 것이다. 예컨대 語文學系列에 속하는 수개 학과에서 言語學, 文學論, 文學評論, 時論 등의 과목을 각기 따로 設講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講義擔當에 문제가 있다면 각 과별로 輪番制로 강의를 담당하면 될 것이다.

일정 比率의 선택과목을 과하되 반드시 他科에 設講된 과목을 이수시킴으로써 學問의 幅을 넓히도록 한다. 이는 專攻敎授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4. 擔當科目의 制限

대학원의 강의는 학부의 강의와는 달리 강의 준비에 시간과 精力이 더 소모된다. 따라서 碩·博士課程을 합하여 學期當 2科目까지만 강의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 강의도 더 많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敎授不足의 現下 부득이하면 1科目 정도 맡는 것은 동료의 禮儀이기도 할 것이다.

2000年代의 敎授責任時間은 6시간대로 下向 調整될 것을 바라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매년 교원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5. 大學院間의 協力體制 確立

知識의 爆發的 增加는 學問의 細分化, 多樣化를 초래하여 고도의 專門人을 필요로 하게 한다. 그러나 단일 대학내에서 이러한 전문인의 需要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각 大學院間의 協力的 當爲性이 있다. 現代社會가 機能分化, 役割分擔으로 특징지워진다면 학문의 세계 역시 이러한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즉 학문의 分業을 명백히 하면 대학원 교육의 暢達에 공헌할 것이다. 각 大學院에 設講된 과목을 모조리 그 대학에 在職하는 敎授가 담당하기에 無理한 경우, 隣接大學敎授를 招聘할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을 인접대학으로 보내 受講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이와 같은 協力體制는 延大·梨大·西江

大間に 이미 실시중에 있고, 여타 대학원간에도 個別的 協約에 의하여 學事協力이 進行되고 있다.

大學院間 協力問題는 미단 學務 운영면뿐만 아니고 經營管理面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圖書館, 實驗實習用 器材 등의 擴充에도 막대한 資本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시설을 위해 共同投資하고 共同使用하는 것은 經營管理의 合理化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다만 문제는 關聯機關의 地理的 近接性이다. 學問活動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遠距離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할 것이다.

6. 卒業과 學位

高等教育의 秀越性 提高 문제는 특히 大學院에서 더욱 절실히 痛感된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수월성 문제는 주로 敎授陣의 秀越性에 달려 있고 교수진의 수월성은 결국 그들을 양성하는 大學院教育의 質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卒業에 이르기까지의 學生管理와 卒業資格의 具備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他職種에 종사하지 않고 全的으로 課程에만 몰두하는 소위 全日學生과 他職에 종사하면서 課程을 履修하는 소위 半日學生과는 學期當 履修學點數에 差等을 두어 勉學의 實效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다만 同系 同種의 研究職에 종사하는 경우—예컨대 大學의 助教 등—는 全日學生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傍系의 下位課程 出身者에 대한 缺損 補充科目의 追加 履修를 義務化하고 그 과목의 先修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특히 博士課程에서 特殊大學院의 碩士課程 出身者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2개의 外國語 試驗과 專攻試驗에 합격하면 一般大學院 修了者와 同一 취급하되 學則規定에 따른 缺損 補充科目을 追加 履修(先修)케 하면 된다.

(1) 論文計劃書

대학에 따라 사정은 다소 다르겠으나 兩課程 修了 豫定者들이 제출하는 學位請求論文이 사전에 指導敎授와의 충분한 指導·協議 없이 提出 마감에 임박해서 규정된 體裁도 갖추지 못한 채 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따라서 論文指導의 徹底를 기하고 부수적으로 論文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각 課程의 二次年에 일정 學點의 履修後 各자의 論文計劃書를 제출케 하여 후후 그 計劃書대로의 進行過程을 注視해야 한다. 所定の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종합시험에도 합격한 연후에 論文計劃의 變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2) 學位論文指導委員會

論文의 質的 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碩士課程과 博士課程에 각각 3인과 5인의 指導委員會를 구성하여 學位 候補者가 제출한 論文計劃書를 검토하여 主題의 妥當性, 研究方法의 合理性·科學性, 參考文獻과 資料 등의 適合性 등에 관해 助言·修正을 가해 良質의 論文作成을 촉구한다. 委員會의 構成은 自科의 教授로만 구성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택하는 選擇科目을 교수하는 학과의 教授로 함이 理想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學問의 幅과 視野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論文指導委員會의 理想的인 役割은 첫째로 提出된 計劃書의 면밀한 檢討에 의하여 그 論文의 骨格을 확정지어 주고, 둘째로 論文 執筆者가 논문 展開 順序에 따라 章·節別로 論述 著作해 내는 複數의 寫本을 委員들이 輪讀하여 자기 論評해 주어 指摘자로 하여금 다시 修正·補完토록 한다. 이와 같은 過程을 수차 되풀이하면 한 편 良質의 論文이 완성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教授 責任時間은 週常 6時間으로 인하여야 한다.

論文指導委員은 學位請求論文 審査委員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學位論文 審査委員이 될 수도 있다.

7. 獎學金

資質이 優秀한 人材의 大學院 誘致의 한 방편으로 獎學金의 確保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碩士課程 履修者들은 동시에 학과의 助教로서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필수불가결의 補助者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장학금 支給이 절실한 것이다.

특히 博士課程 履修者들은 그 年齡層으로 보아 한 가정의 家長 役割을 할 것이므로 修學으로 인한 經濟的 困窮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학비 면제 정도의 장학금보다는 生活人으로서 生存할 수 있는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財政關係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貸與獎學金 형식으로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制度가 아쉽다 하겠다.

8. 先後課程의 連繫性 確立

學部課程, 碩士課程, 博士課程의 각 교과과정의 連繫가 合理的으로 중복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科內에 또는 大學院 自體內에 教科課程 審議機構를 만들어 수시로 혹은 定期的으로 각과의 先後 課程이 무리 없이도 重複·浪費 없이 잘 연계되었는가 검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優秀한 下位課程 履修者가 上位課程의 과목을 受講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이로써 勉學 雰圍氣의 助成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9. 特殊大學院과의 關係

教育大學院, 經營大學院, 行政大學院 등 소위 特殊大學院은 일선의 現職 從事者들이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職業的 專門知識과 技術을 연마 향상시키려는 目的하에 창설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修學의 便利를 위해 夜間에 또는 季節的으로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 理論的인 學問體系를 연수하는 一般大學院과는 그 創立趣旨부터 판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이 두 종의 대학원의 本質的 差異가 있고, 따라서 融合할 수 없는 異質要素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의 兩大學院의 教科內容은 너무나도 흡사하고 共通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때 兩大學院의 學問的 機能의 異質性을 이유 삼아 特殊大學院 修了者의 一般大學院 博士課程 진출이 거부되자 그 이유가 相異한 碩士課程의 教科課程임을 알고 特殊大學院측의 교과과정을 일반대학원의 해당 학과의 教科課程에 準해서 改正하여 그 課程修了者들의 一般大學

院進出에 편의를 제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에 와서는 兩者 相反의 拒否反應은 많이 사라지고 一般大學院 博士課程에서 特殊大學院 修了者들을 試驗에 의해서 入學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되어 있고, 그렇게 입학된 자에 대하여는 同系同種의 一般大學院 碩士課程에서 선택된 缺損補充科目을 이수시킴으로써 進學問題는 해결되고 있다.

日進月步해 가는 學問과 專門知識의 發展에 비추어 研究學問的(academic)學位와 專門職業

的(professional)學位를 엄격히 구별하여 상호 融通性 없는 制度로 남겨 둘 것인가는 더 研究를 요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 나라 高等教育의 과거 一世代間의 變遷을 管見하고, 大學院의 現況을 간단히 살피면서 앞으로의 發展의 方向을 예측해 보았다. 그 중에는 現在 施行중에 있는 施策도 포함되어 있음에 讀者 諸賢의 諒解를 바라며 이 小論은 完成을 기대하는 素描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